



전북은행, 'JB희망의 공부방' 234·235호 개소

전북은행이 지역 아동들의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JB희망의 공부방' 조성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전북은행은 28일 전주시 서신공단지합계돌봄센터와 평화지역아동센터에서 각각 'JB희망의 공부방 제234호, 제235호' 오픈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신공단지합계돌봄센터는 벽면 노후화와 내벽 마감재 손상 등으로 안전한 환경 개선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북은행은 도배와 타일 작업, 루버 시공 등을 통해 안전성을 높이고, 노후된 책걸상과 가구를 교체해 쾌적한 학습 공간을 조성했다. 평화지역아동센터 역시 수납공간 부족과 시설 노후화 문제로 환경 개선이 시급했던 곳으로 불박이장과 진열장 설치, 책걸상 및 블라인드 교체 등을 통해 밝고 정돈된 학습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이날 오픈식에는 각 센터 관계자와 전북은행 임직원 등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 /오상근 기자



남원시, 장애인 신규 이동지원 차량 도입

남원시는 관내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가 지역 내 장애인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돕기 위해 신규 이동지원 차량을 도입하고 본격적인 운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차량 도입은 기존에 운영하던 이동지원 차량 3대 중 일부가 노후(2014년식)되어 고장이 잦아짐에 따라 장애인들의 이동 서비스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가중되어 추진되었다. 특히 이번 신규 차량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남원시지정기탁금) 3,000만원과 센터 자체 예산 약 2,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의 예산으로 구매했으며, 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지원센터(063-636-112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주민주택지과장은 "앞으로도 남원시 장애인분들이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안전한 발이 되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기획감사실, 농촌일손돕기 나서

김제시는 기획감사실이 지난 27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인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황산면 소재 토마토 재배 농가를 방문해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농촌일손돕기는 농촌 인력 감소와 고령화로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이명호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직원 12명은 황산면 남산리의 한 토마토 농가를 찾아 토마토 이크 제거 작업 등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자원순환과, 지역 농가 찾아 일손 도와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김제시 자원순환과가 영농철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찾아 힘을 보태며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자원순환과 직원 15여명은 28일 옹지면 소재의 포도 재배 농가를 방문해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참여한 직원들은 작업 요령을 숙지한 뒤 비닐하우스 내 잡초, 잡목 등을 제거, 농장 주변 환경 정비 활동에 동참하며 본격적인 작업 지원에 나섰다. 한편 시는 해마다 농번기철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농가와 상생에 힘쓰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농촌 현장의 어려움을 공직자들이 직접 체감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국가대표 실용음악 교육기관 위상 재확인

호원대 실용음악학부, '2026 한강 대학가요제' 대상·금상·청춘공감상 수상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실용음악학부 학생들이 2026 한강 대학가요제에서 대상과 금상, 청춘공감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대한민국 대표 실용음악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 참가한 호원대 실용음악학부 학생 전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뛰어난 음악적 역량을 드러냈다. 강희성 총장은 28일 '2026 한강 대학가요제' 수상 학생들을 초청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이날 자리에는 금상을 수상한 밴드 '동영'의 보컬 김동영을 비롯한 주요 멤버 5명이 팀을 대표해 참석했으며, 실용음악학부 신연아 교수도 함께해 강 총장과 수상 기념 촬영을 하며 기쁨을 나눴다. 이번 초청은 지난 5월 2일 서울 잠원한강공원에서 열린 대회에서 호원대 학생들이 대상과 금상, 청춘공감상을 수상한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2026 한강 대학가요제'는 한국·중국·일본·몽골 등 4개국에서 189개 팀이 참가한 글로벌 창작 음악 경연이다. 치열한 예선을 거친 10개 팀이 본선 무대에 올라 창작곡 경연을 펼쳤으며, 호원대 학생들이 참여한 팀들이 주요 부문을 석권했다. 대상은 호원대·서울예대·동양방송대 학생들로 구성된 인조 연합 밴드 '가로인들'이 차지했다. 이들은 자작곡 '커피를 마시자'로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이며 대상과 함께 상금 2,000만 원 및 해외 공연 기회를 받았다. 호원대 실용음악학부 김찬우 학생은 2대 무대에 참여한 팀의 수상에 힘을 보탤다. 이어 호원대 실용음악학부 재학생들로 구성된 8인조 밴드 '동영'은 창작곡 'New Era'로 금상을 수상했다. 보컬 김동영을 비롯해 기타 김동훈·오주현(OZH), 베이스 서한울·드림 최익석·코러스 박예민(예민)·이다희(Hiya)·심다연 등 전원이 호원대 재학생으로 구성된 팀이다. /군산=김만호 기자



이들은 탄탄한 팀워크와 개성 있는 음악성으로 호평을 받으며 상금 1,000만 원과 해외 공연 기회를 받았다. 이외에도 호원대, 서울시립대, 정화예술대, 서경대 연합팀 '감태영 밴드'의 '그럴 수도 있지 뭐'가 청춘공감상을 수상했다. 이번 성과는 록·팝·R&B·국악 퓨전 등 다양한 장르가 경쟁한 국제 규모의 창작 음악 경연에서 순수 창작곡으로 거둔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강희성 총장은 "국내외 실력 있는 대학생들이 참가한 무대에서 우리 학생들이 순수 창작곡으로 값진 성과를 거둔 것은 매우 뜻깊다"며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이 결실로 이어진 만큼 앞으로도 글로벌 음악 시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실용음악학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예술적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최고의 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상 팀들은 향후 정식 음원 발매와 공연 활동 등을 통해 본격적인 음악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군산=김만호 기자



고창농협 등, 농업인 의료복지 향상 협약 체결

고창농협과 석정엘파크병원은 지역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고창농협 유덕근 조합장과 석정엘파크병원 원대원 이사장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양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농업인 복지 향상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조환원 진료와 단체발전을 위한 상호 지원 △지역사회 복지 증진 공동협력 △석정엘파크병원은 고창농협의 소속 조합원 및 가족의 진료 시 최대한의 편의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기타 공동 발전을 위한 사업 등이다. 한편 양 기관은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조합원을 위한 건강 증진 사업 및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 주천면 지사협 정기회의 개최

남원시 주천면은 28일 2026 제2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주천면은 올해 주천면 행복무대 계와 갖기, 홀로 어르신 생일발상 차려드리기, 도란도란 연생방, 우리동네 효자순 건강체크 백세만세, 정성가득한 식사배달, 사랑이름 이불빨방, 행복한 명절 사랑의 꾸러미, 마실가요 보행보호기 지원, 작은 발 큰 꿈 운동화 상품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사협 김영근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사협 위원들과 지역 특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발굴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노환순 면장은 "앞으로도 민관협력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자 발굴,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 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살기 좋은 주천면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송동면, 노후 우체통 교체 지원

남원시 송동면은 1일 1가구 소동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체통이 없거나 노후되어 우편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특거노인 가구 15세대를 발굴해 새 우체통 설치 및 노후 우체통 교체를 지원했다. '어르신 우체통 청소부' 사업은 송동면 우수 시책으로 주민들의 사업 만족도가 높아 202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관내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노후된 우체통 및 장기간 방치된 우편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중요 우편물을 제때 확인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생활상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진균환 면장은 "앞으로도 1일 1가구 소동행정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인적 인연과 연계하여 어르신들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시, 농업용 드론 전문 자격증 교육 시작

정읍시가 농촌 인력난을 덜고 지능형 농업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28일 정읍 드론항공에서 농업인 28명을 대상으로 드론 전문 자격증 교육을 시작했다. 시 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농사 현장에서 쓰임새가 높고 있는 드론의 안전사고를 막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농업인들이 자격증을 따는 데 드는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목적도 담았다. 이번엔 뽑힌 28명의 교육생은 제약 없이 대형 방제 드론을 합법적으로 조종할 수 있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1종' 자격 취득을 목표로 구슬땀을 흘린다. /정읍=김대환 기자

재난안전·가족정책 분야 공로 인정... 도, 공무원 2명 정부포상

박장석 안전정책과장, 노조근정훈장

부티하우 주무관, 근정포장 수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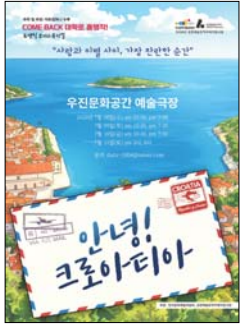
전북특별자치도는 28일 열린 '소통의 날' 행사에서 박장석 안전정책과장과 부티하우 여성가족과 주무관이 각각 정부포상을 수훈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훈은 재난안전과 가족정책 분야에서 현장 중심 행정과 도민 체감형 정책 추진 성과를 인정받은 것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헌신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박장석 안전정책과장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국가재난관리 유공 정부포상'에서 노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 국가재난관리 유공 포상은 재난 예방·대응·복구 등 재난관리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국가 재난관리체계 강화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수여하는 정부포상이다. 박 과장은 사회복지정책과장과 사회복지과장 등을 거치며 재해구조기구의 효율적 운용, 도민 참여형 집중안전점검, AI 기반 드론 재난관리 체계 시범 도입, 현장초지 행동매뉴얼의 생성형 AI 플랫폼 활용 등 재난 대응 체계 혁신을 추진해 왔다. 또한 1992년 공직에 입문한 이후 주력산업과장과 안전정책과장 등을 역임하며 33년간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지역 발전과 도민 인정을 위해 헌신해 왔다. /오상근 기자



부티하우 여성가족과 주무관은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한 '2026년 가정의 달 기념 가족정책 유공 정부포상'에서 근정포장을 수훈했다. 베트남 출신인 부티하우 주무관은 2015년 전북특별자치도에 입문한 이후 다문화가족 지원과 지역사회 통합 정책 추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운영, 결혼이민자 365인니 멘토단 운영, 국적취득 비용 지원, 다정다감 방송 제작 지원, 가족발전 기본사업 수행단체 지원 등 전방위 다문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가족 친화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또한 전북과 베트남 지방정부 간 우호협력 협약 체결 과정에서 통역과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국제교류 확대와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에도 힘써 왔다. /오상근 기자

아트컴퍼니 두루, 뮤지컬 '안녕! 크로아티아' 프리뷰 리딩 공연

전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공연예술단체 아트컴퍼니 두루(대표 오창현)가 창작 뮤지컬 '안녕! 크로아티아'의 본공연을 앞두고 프리뷰 리딩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9일 오후 1시 30분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열리며, 7월 예정된 본공연에 앞서 작품의 주요 장면을 미리 선보이는 자리다. '안녕! 크로아티아'는 2018년 대학로에서 관객과 평단의 주목을 받았던 작품을 기반으로 새롭게 확장된 창작 뮤지컬로 기억과 사랑, 선택과 치유라는 보편적 주제를 음악과 서사를 통해 풀어낸다. 이번 프리뷰 공연은 단순한 쇼케이스를 넘어 하이라이트 장면 공연, 인문학 강연, 창작진과 관객 간 대화가 결합된 '프리뷰 리딩 공연' 형식으로 구성돼 작품의 해석과 창작 의도를 입체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7월 본공연을 앞두고 주요 관계자와 귀빈을 초청해 작품의 방향성과 완성도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아트컴퍼니 두루는 프리뷰를 통해 주요 서사 구조와 음악적 정서를 사전 공개하고, 현장 피드백을 반영해 본공연의 완성도를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작품은 '2026 공연예측 창작주제지원사업' 연속지원 선정 프로젝트로 제작되고 있으며, 아트컴퍼니 두루는 올해 전북도문화관광재단 예술상을 수상하며 지역 기반 창작 역량 인정받았다. /오상근 기자



익산불교사찰순례단, 인화동에 100만원 기탁

익산시 인화동은 28일 '익산불교사찰순례단'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상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익산불교사찰순례단 정권운 단장과 임원진은 부처의 자비 정신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이번 기탁을 마친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인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정기탁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 지원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익산불교사찰순례단은 불자들의 수행과 포교 회원 간 화합을 위해 2022년 활동을 시작해 현재는 100여 명의 회원이 함께하는 지역 불자 모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회원들이 심시야만 모든 회비를 통해 꾸준한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익산시 재정의 연탄나눔 지원뿐 아니라 △천천면장장학회 장학금 지원 △김제 망해사·영천 은혜사 화재 피해 복구 성금 전달 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펼쳤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불교사찰순례단은 불자들의 수행과 포교 회원 간 화합을 위해 2022년 활동을 시작해 현재는 100여 명의 회원이 함께하는 지역 불자 모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회원들이 심시야만 모든 회비를 통해 꾸준한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익산시 재정의 연탄나눔 지원뿐 아니라 △천천면장장학회 장학금 지원 △김제 망해사·영천 은혜사 화재 피해 복구 성금 전달 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펼쳤다. /익산=이재훈 기자